

# 울산광역시 다문화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지적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매개로 하여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박민정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

## The Effect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Intrinsic Work Value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of Ulsan Metropolitan City -Mediation Effect of Epistemic Curiosity and Challenging Spirit-

Min-Jung Park

Policy Research Team, Ulsan Women &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요약**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거주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직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유형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자기결정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 될수록 내재적 동기(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가 강화되는지, 둘째,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면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강화되는지, 셋째,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내재적 동기가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설문지 189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기본심리욕구가 지적 호기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관계성을 제외하고 자율성과 유능성이 지적 호기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도전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계성을 제외하고 자율성과 유능성이 도전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지적호기심과 도전정신이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설로서 지적 호기심만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자율성과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관계를 지적호기심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psychological needs and intrinsic motivations necessary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residing in Ulsan Metropolitan City to find meaningful and desirable jobs in society. This study analyzed whether basic psychological needs (autonomy, competence, and relatedness) influence intrinsic motivation (epistemic curiosity and challenging spirit) and intrinsic motivations influence intrinsic work value, with the medi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This study commissioned a specialized investigation agency to conduct a survey and analyz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189 collected questionnair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Hypothesis 1 analyzed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epistemic curiosity. The results showed that autonomy and competence positively affected epistemic curiosity. Hypothesis 2 analyzed the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he challenging spirit. Autonomy and competence positively affected the challenging spirit, according to this analysis. Hypothesis 3 analyzed the effects of epistemic curiosity and challenging spirit on intrinsic work values, and it was found that only epistemic curiosity had a positive effect on intrinsic work values. As for the mediating effect, it was found that epistemic curiosit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and intrinsic work value.

**Keywords** : Basic Psychological Needs, Intrinsic Work Value, Epistemic Curiosity, Challenging Spirit, Multi-cultural Adolescent, Ulsan Metropolitan City

본 논문은 울산여성가족개발원원 기본연구과제 ‘울산광역시 다문화 청소년의 역량강화 방안’ 연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Min-Jung Park(Ulsan Women &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email: park6981@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6, 2021

Revised December 13,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Published January 31, 2022

## 1. 서론

다문화청소년들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다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 등 진로 탐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진학이나 직업 선택의 폭이 좁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1]. 일반(비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우호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는 다문화청소년이므로 단순히 흥미나 적성에 따른 진로 선택은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작성한 '2021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은 14만7천378명이었으며, 2013년(5만5천780명)의 3배 수준이다. 또한 전체 초중고생(535만6천명)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였으며, 이 비중 역시 2013년의 0.9%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가 2018년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만 13세 이상의 다문화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진로, 진학 및 취업에 대한 내용이 4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은 일반 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전공 및 직업의 선택과 진로 결정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 다시 말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이 이들의 진로선택이나 준비에 독특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 청소년들보다 더욱 복잡하고 심각한 진로문제를 가질 수 있으며[3],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가정 청소년들보다 가정이나 주위의 환경을 감안할 때 진로발달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 역사가 깊어짐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 진출 규모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이제는 다문화청소년이 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는 사회인으로 자리 잡아 가도록 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즉 진로 결정의 부정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연구 외에도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에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직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유형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 관점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논의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확대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책이나 기업 현장에서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다.

진로선택이나 결정에 있어서 오랫동안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Parsons의 특성-요인(trait-factor)이론에서는 흥미, 능력, 태도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이 직업 요인과 일치하는 경우 개인은 최대한의 능력 발휘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4]. 개인의 특성과 직업 요인이 일치하는 대안들 중에서 개인은 하나를 자신의 진로로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가치관(value)과 목적(objective)이다[5]. 따라서 직업가치관(work value)은 청소년이 진로결정을 하는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직업가치관은 직업에 대한 가치관으로 볼 수 있는데, 직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 혹은 견해를 의미한다[6]. 그동안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인식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는 있으나 직업가치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직업가치관이 하나의 다른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성숙도나 진로인식의 하위요인 정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7]. 직업가치관은 내재적 직업가치관과 외재적 직업가치관으로 구분된다. 여러 연구자들의 관점을 종합해보면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일과 직업 자체에서 얻게 되는 흥미, 만족, 봉사 등 직업 그 자체의 본연 활동에서 오는 가치나 자신의 내적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 반면,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직업안정, 후생복지, 임금, 명예, 승진 같은 물질적 보상이나 사회적 존경 등 외적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8]. 다문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일반가정 학생들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8],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초점을 맞추어 어떠한 요인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내재적 직업가치관을 강화시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영향요인은 자기결정이론(SDT: 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도출하였다.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긍정적 특징을 유지하고, 인간이 삶에서 주체성, 노력, 자기 결단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신념이 중심이 된다는 이론이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른 연속선상에서 동기를 '무동기', '외재적 동기', '내재적 동기' 등으로 분류한다. '무동기'에서 '내재적 동기'에 이를수록 자기결정성이 더 강하게 발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9].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충분한 동기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진로나 직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기대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0]. 특히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형성은 외재적 동기보다는 내

재적 동기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Ryan & Deci(2000)는 어떤 특정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즐거움이나 재미와 같은 내재적인 만족을 위하는 경우에 가지게 되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라고 하였다[9]. Vallerand & Losier(1999)는 내재적 동기의 구성요인으로 지식 습득, 과제 성취, 감각 체험 등을 제시하고 있다[11]. Beswick & Tallmadge(1971)과 Deci & Ryan(1985)은 호기심과 내재적 동기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12,13].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대상으로 하였다. 호기심(curiosity)을 동기의 한 종류로 보는 관점은 호기심을 보상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제 자체가 주는 즐거움,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재미 등과 같은 내재적 속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유발된 상태로 설명한다[14]. Berlyne(1954)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대상의 특성 및 본질적인 내용에 따라 지적(epistemic) 호기심과 감각적(perceptual) 호기심으로 분류하였는데 [15], 본 연구에서는 지적 호기심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아직까지는 사회적 인식의 문제로 일반 청소년보다는 다문화청소년이 진로 기회의 문이 좁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회와 잠재적 가능성에 도전하여 자신만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하는 성장 동력의 원천[16]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도전정신이다. Ryan & Deci(2000)가 정립한 자기결정 이론 중 하나인 기본심리욕구(basic psychological needs)이론은 개인의 가치형태와 조절양식을 심리적 건강과 연결시켜 설명한 이론이다[17].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행동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을 유지하므로 개인이 유능성(competence)을 지각하거나 자율성(autonomy), 관계성(relatedness) 등을 충족할 때 삶의 만족이나 행복(well-being)을 가질 수 있다[17,18]. 그러한 과정 중 내재적 동기가 매개 역할을 한다. 즉 기본심리욕구인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이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를 추구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청소년의 직업가치관이 어떠한 영향요인들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를 자기결정이론을 적용하여 실증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 혹은 직업 선택의 여부보다는 직업선택의 전단계인 직업가치관에 주목하였다. 자기결정 이론 중 하나인 기본심리욕구이론에서는 기본심리욕구인 관계성, 유능성, 자율성이 충족되면 내재적 동기를 추구

하게 된다고 보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내재적 동기요인으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기본심리욕구가 충족이 될수록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는지, 둘째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면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강화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내재적 동기가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기본심리욕구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의 본성이 지속적으로 긍정적 특징을 유지하고, 인간이 삶에서 주체성, 노력, 자기 결단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신념이 중심이 되는 이론이다. 이 중 내재적 동기가 매개 역할을 한다. Ryan & Deci(2002)의 인지평가이론에서는 인간은 스스로를 통제하며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끼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19]. 자율성을 가진 인간은 자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며 절제할 수 있다. 어떤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흥미에 의해 중요한 것을 선택하며, 가치 있는 결정이었다고 지각할 때 자율성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9]. 유능성은 개인이 마주하는 특정 상황이나 과업을 직면한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신념이다[19]. 유능성을 지각하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면서 그에 따른 만족감을 경험한다. 개인이 처한 환경이 유능성을 지각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내재적 동기 역시 커질 수 있다. 유능성이 지각되면 내적인 동기가 발전되고,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으로 자기통제가 촉진되고 자신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기성취적인 목표를 자율적인 결정으로 수행하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9]. 관계성은 개인이 속한 환경 속에서 주변인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향으로서, 관계성을 추구하는 개인은 본인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지할 때 만족감을 느낀다[19].

### 2.2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

Ryan & Deci(2000)에 의하면 내재적 동기란 어떤 특정 결과를 위함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즐거움과 재미와 같은 본질적인 만족을 위해 활동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7]. Oudeyer & Kaplan(2007)은 내재적 동기에 의해 능숙성과 모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인지적 부족음을 감소시키는 최적의 행동을 추구하는 행동의 변화가 발생한다고 하였다[20]. Vallerand & Losier(1999)는 내재적 동기의 구성요인으로 지식 습득, 과제 성취, 감각 체험 등을 제시하였다[11].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내재적 동기 요인에 지적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포함된다는 논리를 추론할 수 있다. 호기심 개념의 구체적 정의나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21], 새로운 정보와 지식에 대한 욕구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초기의 연구에서는 호기심을 측정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대표적인 분류방법으로 Berlyne(1954)은 호기심을 지적 호기심(epistemic curiosity)과 감각적 호기심(perceptual curiosity)으로 나누고 있는데, 지적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감각적 호기심은 소리, 냄새와 같은 새로운 자극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한 흥미를 의미한다[14,15].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는 지적 호기심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Renner(2006)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는 사회적 호기심 척도를 개발했다[22]. Kashdan & Robertset(2004)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호기심 자체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롭고 도전적인 것에 대한 인식과 추구 및 자기조절과 관련된 긍정 정서-동기 체계”로 호기심을 정의하였다[23]. 호기심을 새로운 지식과 자극의 습득을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 추동(drive)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24], 새로운 지식과 자극의 탐구를 촉진시키는 동기요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4]. 호기심이 동기요인이라면 호기심 충족으로 능동적인 태도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직업가치관으로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도전정신은 본인에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 했던 상황, 기술, 과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수행하고 경험하려는 태도를 의미한다[25]. 청소년의 진로 개발역량의 하나로서 Jin et al.(2015)은 도전정신을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태도로 정의하였다[16].

### 2.3 직업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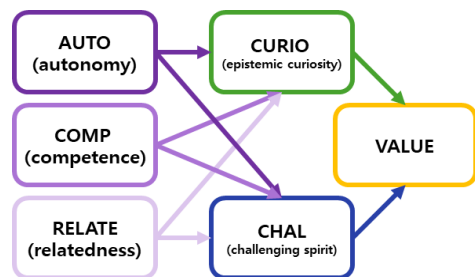
개인이 살아가면서 누적된 다양한 경험들이 내면화된 것을 의미하는 가치관은 한 개인의 사고방식 혹은 행동양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직업가치관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Kinnane & Pable(1962)은 직업가치관을 직업에 대한 개인의 일반적인 태도, 주변 환경 혹은 사회

매체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는 가치관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였다[26]. Lim et al.(2001)은 직업가치관을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또는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로 정의하였다[4]. Gim(2019)은 직업가치관이란 직업선택이나 활동, 만족, 가치판단에 있어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직업의 가치기준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다양한 일과 직업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 신념, 관점, 성향, 기준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27]. 이러한 직업가치관은 내적 및 외적 직업가치관으로 분류하거나, 3개 이상의 직업가치관으로 분류하기도 하면서 연구자마다 직업가치관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6].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내재적, 외재적 직업가치관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재적 직업가치관은 직업 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흥미나 중요성을 기본으로 하는 가치관이며, 외재적 직업가치관은 경제적 부, 명성, 직업 안정 등과 같이 해당 직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외부 자원에 치중하는 가치관을 의미한다[28].

## 3. 연구의 설계

### 3.1 연구모형과 가설의 설정

연구 모형은 과학적인 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성적인 인식과 분석의 도구가 되는 동시에, 그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에도 유용한 기준이 된다(이경서, 2004). 따라서 연구 모형 설계는 과학적 연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사회 과학 분야의 각종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 모형 설계는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 필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두배, 2012).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의 다양한 논의들을 참고



note) AUTO(autonomy), COMP(competence),  
RELATE(relatedness), CURIO(epistemic curiosity),  
CHAL(challenging spirit), VALUE(intrinsic work value)

Fig. 1. Research model

하면서,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기본심리욕구, 지적호기심, 도전정신, 내재적 직업가치관 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Fig. 1과 같은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내재적 동기를 갖기 위해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의 기본심리욕구 요소를 필요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9]. 기본심리욕구는 개인의 내재 동기 강화와 행동의 내면화 과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29]. 국내의 진로 관련 연구에서 기본심리욕구의 충족이 진로 관련 활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와 유의한 정(+)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30,31]. 내재적 동기란 어떤 특정 결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즐거움이나 재미와 같은 내재적인 만족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라는 Ryan & Deci(2000)의 정의[17]와 내재적 동기의 구성요인의 하나로 지식 습득을 제시한 Vallerand & Losier(1999)의 연구[11], 내재적 동기와 모험성 간의 관련성을 주장한 Oudeyer & Kaplan(2007)의 연구[20]등을 종합하면 지적 호기심과 도전 정신을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1과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기본심리욕구는 지적 호기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자율성은 지적 호기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2. 유능성은 지적 호기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3. 관계성은 지적 호기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기본심리욕구는 도전정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자율성은 도전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2. 유능성은 도전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3. 관계성은 도전 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에 있어서 동기는 직업에 대한 기대, 직업 경험의 변경 등에 영향을 미친다[32]. 직업가치관은 목표의 내용을 측정하고 내재적 동기는 목표를 추구하는 동기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목표의 지어는 이를 추구하는 다양한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33].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형성에는 내재적 동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면 호기

심은 개인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3].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3과 가설 4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지적 호기심은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도전 정신은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재적 동기가 충족되면 삶의 만족이나 웰빙을 추구하는 직업으로 진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내재적 동기와 기본심리욕구,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상의 논리를 바탕으로 가설 5와 가설 6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5. 지적 호기심은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6. 도전 정신은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본 연구의 변수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발간한 울산광역시 다문화 청소년의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34]에서 사용한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국제적으로도 적용된 청소년역량지수를 활용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청소년 역량에 관련한 연구를 다년간 실시하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역량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실적이 없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에 적절한 설문항목으로 정제하여 울산광역시 거주 다문화 청소년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2.1 자율성**

자율성은 자기 스스로가 행동의 조력자라고 믿고 스스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13]. 본 연구에서는 학습주도성 관련 2개 문항(나는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도 그 성공의 원인을 찾아낸다, 나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실패했다면,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한다)과 진로설계의 진로태도 1개 문항(나는 나의 할 일을 스스로 해내는 습관을 지니고 있다)으로 자율성을 측정하였다.

**3.2.2 유능성**

유능성은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행동하려는 욕구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하려는 차별화 태도 3개 문항(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면 독특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많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쉽게 따라 하지 않는다)으로 유능성을 측정하였다.

### 3.2.3 관계성

관계성은 타인과 의미 있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이다[13]. 본 연구에서는 친화성 2개 문항(나는 관심 있는 새로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나는 새로운 사람을 알아 가는 것이 재미있다)과 공감배려 3개 문항(나는 다른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한다, 나는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을 존중한다) 등 총 5개 문항으로 관계성을 측정하였다.

### 3.2.4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14]. 본 연구에서는 변화수용력 1개 문항(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 지적 호기심 2개 문항(나는 무언가를 새롭게 배우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한다) 등 총 3개 문항으로 지적 호기심을 측정하였다.

### 3.2.5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에 도전하는 태도를 의미한다[16]. 본 연구에서는 도전 정신 3개 문항(나는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과제나 일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계속해서 변하거나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일을 좋아한다, 나는 변화가 별로 없는 안정적인 환경은 지루해서 좋아하지 않는다)으로 구성하였다.

### 3.2.6 내재적 직업가치관

본 연구에서는 진로설계의 직업가치관 2개 문항(나는 자신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

각한다, 나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하는 삶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을 사용하였다.

## 3.3 표본의 선정과 특성

울산광역시의 다문화 학생 비율은 2.5%로 광역시에서는 인천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설문지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분하였고 본 조사에 앞서 학계 전문가 3인, 현장 전문가 2인에 의뢰하여 설문문항에 대한 검토를 받아, 문항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COVID-19로 인해서 비공식적인 개별 면담이 불가능하여 울산지역의 총 61개 지역아동센터에 개별 연락하여 협조에 동의한 22개 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자가 방문하여 담당 교사에게 설문지와 연구취지를 직접 설명한 후, 담당교사가 다문화청소년을 개별 면담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언어 소통이나 저연령으로 인한 이해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시간에 걸쳐 담당 교사가 전문 용어 등 설문 내용을 설명하고 작성 중 발생하는 의문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하는 과정을 거쳤다.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가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커뮤니티를 접촉하여 커뮤니티의 소속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동의를 한 청소년 29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0년 11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202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13부를 제외하고 189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울산광역시는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3.6%로 중학교(2.0%), 고등학교(0.6%)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생 다문화 청소년이 높은 비중으로 설문에 응했으며, 중·고등학생 다문화 청소년 설문을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다문화여성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였으나 설문 회수가 저조하여 모집단의 학교 급별 비율을 충분히 반영하는 표본 구성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학교 급을 보면 초등학교 68.8%, 중·고등학생은 31.2%였다. 연령은 12세 이하 68.8%, 13세 이상 31.2% 나타났고, 여성청소년은 54%, 남성청소년 46%였고, 거주 지역은 북구 2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동구 24.9%, 중구 21.7%, 남구 17.5%, 울주군 10.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Frequency(%)			Frequency(%)
Age	Under 12 years	130(68.8)	Sex	Male	87(46.0)
	Over 13 years	59(31.2)		Female	102(54.0)
Sch- ool Class	Primary 4~6	130(68.8)	Resi- dence	Junggu	41(21.7)
	Junior high 1~3	47(24.9)		Namgu	33(17.5)
	Ssenior high 1~3	11(5.9)		Dongu	47(24.9)
	Ineducation	1(0.4)		Bukgu	49(25.9)
				Uljugun	19(10.1)

### 3.4 분석 방법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내재적 동기(지적 호기심, 도전 정신), 직업가치관 간의 관련성을 반영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SPSS 23.0과 AMOS 23.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변수별 분포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잠재변수들에 대하여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및 최댓값을 도출하고, 인구통계변인에 한하여 빈도 및 백분율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인들 간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데이터 투입 유형을 결정하기 위해 자료의 왜도와 첨도 지수를 활용하여 정규성 수준을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Cronbach's  $\alpha$  계수(이하, Cronbach's  $\alpha$ )를 통하여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넷째, 잠재변인 간 관계 검증은 구조방정식 최대우도법을 활용하였다. 우선 모형 다듬기(trimming)를 통해 카이제곱 차이 통계치(chi-square difference statistics) 검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중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최종 구조모형으로 결정하였다. 구조모형을 통하여 가설 검증을 하였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적용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타당성과 신뢰성의 검증

신뢰성이란 연구자가 어떤 연구문제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하여 그 조사를 다시 반복한다면, 그 결과와 원래 측정치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을 통한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가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35],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2. Measuement model

Variable		$\beta$	SE	AVE	CR	Cronbach's $\alpha$
AUTO	1	.824		.547	.778	.725
	2	.515	.148			
	3	.618	.155			
COMP	4	.531		.822	.976	.699
	5	.744	.375			
	6	.752	.358			
RELATE	7	.614		.554	.859	.730
	8	.506	.255			
	9	.684	.240			
	10	.685	.353			
	11	.557	.346			
CURIO	13	.590		.541	.708	.611
	14	.501	.186			
CHAL	15	.853		.679	.936	.803
	16	.833	.112			
	17	.560	.123			
VALUE	18	.543		.760	.856	.660
	19	.909	.475			

note) \* p<0.10, \*\* p<0.05, \*\*\*p<.01

타당성 중 본 연구에서는 개념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통한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먼저 모든 측정변수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표준화 요인 적재량이 0.5 이하인 문항은 제외하였다. 제외된 문항은 지적 호기심 변수의 한 문항(새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는 사용한다)이다.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 변인들이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한 결과, 모두 0.5를 상회하고 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분석한 결과  $\chi^2/df$  가 2.388(327.138/137), CFI 0.904, IFI 0.919, TLI 0.830, NFI 0.898, RMSEA 0.073로 나와서, CMIN/DF 는 3이하, GFI, TLI, CFI는 모두 0.9이상, RMSEA는 0.08이하로 기준을 제시한 연구[36]의 결과에 따라 모형이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중 타당성은 하나의 구성 개념에 대한 2개 이상의 측정 도구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집중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평균분산추출지수(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구성 개념 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모든 잠재변수의 AVE와 CR은 기준치인 0.5와 0.7 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인되었다. 판별타당성은 두 요인 사이에서 구한 분산추출지수가 각 요인의 상관계수의 제곱인 결정계수보다 크면 두 요인 사이에는 판별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Fornell & Larcker(1981)의 방식[37]을 따라 평가한 결과, Table 4에서 요약한 대로 모든 잠재변수의 판별타당성이 확인되었다.

#### 4.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본심리욕구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보면, 자율성(M=2.03, SD=.65), 유능성(M=2.19, SD=.60), 관계성(M=1.86, SD=.48) 중 관계성의 평균값이 가장 낮은 것은 다문화청소년의 현실적 애로를 반영하고 있다. 내재적 동기를 나타내는 지적 호기심(M=1.72, SD=.56), 도전정신(M=2.23, SD=.74) 중 지적 호기심의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는데,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학습여건이 그들의 의지를 지지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가치관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M=1.58, SD=.56). 정규성은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로 평가하였다. 왜도는 분포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이다. 정규분포, t분포와 같이 대칭인 분포의 경우 왜도가 0이다. 첨도는 분포의 꼬리부분의 길이와 중앙부분의 뾰족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량이다. 모든 변인의 왜도, 첨도 값은 절대값이 정상성 판단기준 2와 4를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는 Table 4에 요약되어 있다. 상관관계 분석은 가설의 검증 이전의 가설에서 기대하는 변수 간 관계에 대한 대체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한다. 우선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와 매개변수인 내재적 동기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모든 상관계수가 1%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있다. 지적 호기심과는 자율성이, 도전정신과는 유능성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와 종속변수인 직업가치관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모든 상관계수가 1% 수준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확인해주고 있으며, 자율성이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가설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ean	SE	Max.	Min.
AUTO	2.0343	0.65446	1.00	3.67
COMP	2.1961	0.60467	1.00	3.33
RELATE	1.8676	0.48575	1.00	3.20
CURIO	1.7279	0.56273	1.00	3.00
CHAL	2.2353	0.74660	1.00	4.00
VALUE	1.5809	0.56390	1.00	3.50

Table 4. Correlations

	AUTO	COMP	RELATE	CURIO	CHAL	VALUE
AUTO	(.547)	.452**	.522**	.640**	.469**	.511**
COMP		(.822)	.574**	.554**	.613**	.339**
RELATE			(.554)	.603**	.548**	.465**
CURIO				(.541)	.693**	.505**
CHAL					(.679)	.309*
VALUE						(.760)

note 1) \* p<0.05, \*\* p<0.01  
2) AVE in ( )

#### 4.3 가설의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Table 4에서 독립변수인 기본심리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간의 상관계수가 .452에서 .574로 나와 다중공선성의 의심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VIF값을 산출한 결과 모두 임계치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다중공선성 문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심리욕구와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에 내재적 동기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경우 변인 간의 인과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내재적 동기를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모형 1)으로 설정하였으며 부분매개하는 모형을 경쟁모형(모형 2)으로 채택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에서의 구조모형을 적합도 측면에서 평가하여 Table 5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중, 상대적 적합도 지수 CFI는 .875, TLI는 .899 로서 .90이며 절대적 적합도 지수 RMSEA는 .077(90% 신뢰구간 .062-.098)로서 전반적으로 만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연구모형의 것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두 모형 간의  $\chi^2$  차이 검정을 실시



하여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자유도 3 증가에 따른 모형의 설명력 증가도가 유의하므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Comparison of model fitnesses

model	$\chi^2$	df	$\chi^2 / df$	p	CFI	TLI	RMSEA
1	318.77	124	2.571	.000	.875	.899	.077
2	327.76	127	2.935	.000	.790	.806	.088

본 연구가설은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으며 검증한 결과를 Table 6에 요약하였다.

Table 6. Structural model : H1-H3

Hypotheses	Path	$\beta$	SE	C.R.	Result
H1	H1.1 AUTO->CURIO	.941**	.123	4.337	O
	H1.2 COMP->CURIO	.128	.131	.971	X
	H1.3 RELATE->CURIO	.680**	.184	3.088	O
H2	H2.1 AUTO->CHAL	.517**	.150	3.723	O
	H2.2 COMP->CHAL	.477**	.335	2.700	O
	H2.3 RELATE->CHAL	.438**	.257	2.714	O
H3	H3 CURIO->VALUE	.929*	.373	2.212	O
H4	H4 CHAL->VALUE	-.505	.157	-1.496	X

note) \* p<0.05, \*\* p<0.01

H1은 기본심리욕구가 지적 호기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자율성(B=.870, p<.01)과 유능성(B=1.446, p<.05)은 지적 호기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성(B=-1.194, p<.05)은 지적 호기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2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도전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율성(B=1.1271, p<.01)과 유능성(B=3.306, p<.05)은 도전정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계성은 도전정신에 미치는 부(-)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H3은 지적호기심과 도전정신이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설로서 지적 호기심은 직업가치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beta = .929$ , p<.05), 도전 정신이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잠재변수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2,000번의 부트스트래핑 표집을 하고 percentile-based confidence interval을 적용해 계산하였다.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p값이 .05 미만이면서 비표준화추정치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Table 7에는 기본심리욕구와 내재적 직업가치관 간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를 요약하였다. 본 연구는 이중매개의 양상을 나타내므로 팬텀 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매개효과를 세분화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매개효과가 검증이 된 경로는 ‘자율성->지적호기심->내재적 직업가치관’으로 나타났다( $\beta=.051$ , p<.05).

Table 7. Test of mediation effects : H5-H6

Path	Indirect effect		
	$\beta(p)$	Lower bounds	Upper bounds
AUTO -> VALUE	.635(.597)	-1.538	2.063
AUTO->CURIO->VALUE	.051(.044)	.012	1.66
AUTO->CHAL->VALUE	.026(.262)	-.257	1.952
COMP -> VALUE	-.670(.270)	-2.310	0.386
COMP->CURIO->VALUE	.572(.609)	-.482	1.025
COMP->CHAL->VALUE	.788(.208)	-.164	1.767
RELATE -> VALUE	.720(.051)	-0.023	3.216
RELATE->CURIO->VALUE	-.567(.541)	-1.336	.454
RELATE->CHAL->VALUE	-.776(.349)	-1.694	.284

## 5. 결론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10년 이상 장기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2009년 15.6%에서 2018년 기준 60.6%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장기정착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만 9~24세 다문화가족 자녀 중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가 83.8%라고 한다. 이제는 다문화 청소년이 사회에서 의미 있고 바람직한 직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어떠한 유형의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자기결정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등의 기본심리욕구가 충족이 될수록 내재적 동기가 강화되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재적 동기요인 중 지적 호기심과 도전정신을 선택하였다. 둘째, 내재

적 동기가 강화되면 내재적 직업가치관이 강화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셋째, 기본심리욕구가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내재적 동기가 매개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수된 설문지 189부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내재적 동기의 완전매개하는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기본심리욕구가 지적 호기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관계성을 제외하고 자율성과 유능성이 지적 호기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는 기본심리욕구가 도전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관계성을 제외하고 자율성과 유능성이 도전정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지적호기심과 도전정신이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가설로서 지적 호기심만 내재적 직업가치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는 자율성과 내재적 직업가치관의 관계를 지적호기심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울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추구하는 능동적 유기체로서 일생을 통해 스스로 도전과 호기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학습과 가치를 내재적으로 통합시키는 성향을 갖는다[38]. 자기결정이론에서 또한 내재적 동기는 모두 개인의 기본심리욕구가 다른 요인에 의해 지지될 때 최상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17]. 호기심, 도전추구의 능력 발달은 내재적 동기이므로 다문화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가 만족되면 흥미를 느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헌신하게 하는 내재적 동기 발현에 필요한 기반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본 연구는 확인해주고 있다. 자신 스스로의 의지로써 행동하고 그로 인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자율성과,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자신의 유능감이 확인할 경우는 내재적 동기가 발현하게 된다. 또한 관계성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가 필요한 활동이나 작업에서 효과를 발휘하므로 출발부터 관계성이 취약한 다문화청소년이라도 관계성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내재적 동기에 대하여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둘째 자율성이 높을수록 자신의 발전을 지향할 가능성이 크므로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지식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일상적인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은 다문

화청소년의 자율성이 커지면 더 많아질 것이다. 업무가 지루하거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비일상적이며 흥미롭고 참신한 경우 새롭게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도전 정신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능성이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심리적 욕구이며 개인의 역량 개발 및 기술을 능숙하게 하는데 다문화청소년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더 나은 도전을 추구하고 숙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질 것이다[13]. 다문화청소년은 관계성이 강화되면 환경에 흥미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집단의 욕구와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단 유능성이 지적 호기심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으므로 울산광역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책 입안이나 실천 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이 익숙하지 않은 호스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반청소년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누적하여 발전하는 관계성은 다문화청소년 본인에게는 소속감 및 자긍심과 같은 개인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호스트 문화에 적응한다는 목표는 평균 수준을 회귀하는 데 목표를 두지 그 범위를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을 억제하는 기능을 할 것이므로 새로움에 도전하는 태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보호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모국어를 쓰지 않고, 빠른 한국어 습득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들이 모국어를 잊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녀의 이중 언어, 이중문화 자원 활용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 결과를 감안하면, 기본심리욕구 중 부족하다고 나온 관계성을 증진시키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학습지원 중심의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이성적 판단능력, 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 단체, 직업교육훈련 기관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직업 및 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교육훈련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전문가 배치 및 활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문화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청소년의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청소년 역량을 고

르게 발달시키기 위한 다문화청소년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학습 분야에 집중되어 성적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 위주의 구성과 고른 청소년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도 중요하지만 긍정적이고 자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양육태도는 청소년 역량 향상에 긍정적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자체와 학교, 그리고 다문화지원시설의 노력 외에도 가정에서의 관심이 필요하다. 청소년역량 개발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자와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이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각 부처 및 지원센터 별로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다문화가족 청소년이 효율적인 지원을 받기 힘든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내 중심기관 운영체계가 필요하고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연령별 배경에 따라 프로그램 수요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과의 일반화를 제약하는 표본 특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다양성을 확대하여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문화청소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지역별 차이도 확인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발달이론에서 보면 다문화청소년은 연령별로 진로발달의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발달단계별로 적합한 진로를 확인할 수 있다. 직업가치관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궤적에 따른 역량이나 욕구, 동기 등이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단계별로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여 실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발성 연구가 아닌 패널자료 구축을 위한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s

- [1] S. C. Park, M. S. Lee, "The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School Life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s -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2, pp.829-843, 2021.  
DOI: <https://doi.org/10.22678/JIC.2021.19.5.139>
- [2] C. H. Le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Social Withdrawa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2, no.2, pp.271-289, 2021.  
DOI: <http://dx.doi.org/10.16881/iss.2021.04.32.2.271>
- [3] A. R. Lee, B. Y. Son, J. Y. Lee, "Qualitative Study on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experience of Career barri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5, no.11, pp.35-64, 2018.  
DOI: <http://dx.doi.org/10.21509/KJYS.2018.11.25.11.35>
- [4] E. Lim, Y. Jung, K. Sang, A Technical Report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Technical Repor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orea, p.1, 2001.
- [5]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6, pp. 282-298, 1980.  
DOI: [http://dx.doi.org/10.1016/0001-8791\(80\)90056-1](http://dx.doi.org/10.1016/0001-8791(80)90056-1)
- [6] J. Kim, M. S. Kim, M. K. Song, "The Effects of Work Values on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vol.18, no.1, pp.49-74, 2021.
- [7] N. G. Gim, J. C. Jeong, "Development of Work Values Sca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31, no.1, pp.111-141, 2018.  
DOI: <https://dx.doi.org/10.24062/kpae.2018.31.1.111>
- [8] N. G. Gim, J. C. Jeong, J. S. Song, "The Comparative Study of Work Valu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General Familie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7, no.2, pp.27-48, 2018.
- [9] E. L. Deci, R. M. Ryan,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11, pp.227-279, 2000.  
DOI: [http://dx.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http://dx.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 [10] H. M. Lee, Y. M.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Career Barriers and Career Consciousness Develop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Career-related Parental Behavior",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0, pp.665-689, 2019.  
DOI: <https://dx.doi.org/10.22251/jilcci.2019.19.10.665>
- [11] R. J. Vallerand, G. F. Losier, "An integrative analysis of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in sport",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vol.11, no.1, pp.142-169, 1999.  
DOI: <https://doi.org/10.1080/10413209908402956>
- [12] D. G. Beswick, G. K. Tallmadge, "Reexamination of two learning style studies in the light of the cognitive process theory of curios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62, no.6, pp.456-462, 1971.  
DOI: <https://doi.org/10.1037/h0031817>
- [13] E. L. Deci, R. M. Ryan,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19, no.2,

- pp.109-134, June 1985.  
DOI: [https://doi.org/10.1016/0092-6566\(85\)90023-6](https://doi.org/10.1016/0092-6566(85)90023-6)
- [14] Y. S. Sung, H. J. Kim, D. Y. Song, "The Psychological Mechanism of Epistemic Curiosity: a comparative study of two curiosity gratification types", *Th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9, no.2, pp.305-331, 2008.  
DOI: <https://dx.doi.org/10.21074/kjcap.2008.9.2.305>
- [15] D. E. Berlyne, "A Theory Of Human Curiosity",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vol.45, no.3, pp.180-191, 1954.  
DOI:<http://dx.doi.org/10.1111/j.2044-8295.1954.tb01243.x>
- [16] S. H. Jin, E. M. Sung, C. W. Choi,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Korean youth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indica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6, no.3, pp.195-220, 2015.  
DOI: <https://dx.doi.org/10.14816/sky.2015.26.3.195>
- [17] R. M. Ryan, E.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55, no.1, pp.68-78, 2000.  
DOI: <https://dx.doi.org/10.1037110003-066X.55.1.68>
- [18] C. Levesque, A. N. Zuehlke, L. R. Stanek, R. M. Ryan,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96, no.1, pp.68-84, 2004.  
DOI: <https://dx.doi.org/10.1037/0022-0663.96.1.68>
- [19] R. M. Ryan, E. L. Deci,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 dialectical perspectiv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pp.3-33, 2002.
- [20] P. Oudeyer, F. Kaplan, V. V. Hafner, "Intrinsic Motivation Systems for Autonomous Mental Development", *IEEE Transactions on Evolutionary Computation*, vol.11, no.2, 2007.  
DOI: <https://doi.org/10.1109/TEVC.2006.890271>
- [21] M. Y. Sim, O. Y. Lee, "Effects of Multicultural Experiences of Adolescents and Multicultural Perception and Stereotyp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5, no.10, pp.214-224, 2015.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5.15.10.214>
- [22] B. Renner, "Curiosity about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ocial curiosity measure in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87, pp.305-316, 2006.  
DOI: <https://dx.doi.org/10.21074/kjcap.2008.9.2.305>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8703\\_11](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8703_11)
- [23] T. B. Kashdan, J. E. Roberts, "Trait and state curiosity in the genesis of intimacy: Differentiation from related construc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23, no.6, pp.792-816, June 2004.  
DOI: <http://dx.doi.org/10.1521/jscp.23.6.792.54800>
- [24] J. A. Litman, C. D. Spielberger, "Measuring epistemic curiosity and its diverse and specific componen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80, pp.75-86, June 2010.  
DOI: [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8001\\_16](http://dx.doi.org/10.1207/S15327752JPA8001_16)
- [25] J. G. Covin, D. P. Slevin,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no.1, pp.7-25, 1991.  
DOI: <http://dx.doi.org/10.1177/104225879101600102>
- [26] J. E. Kinnane, M. W. Pable, "Family background and work value orient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9, no.4, pp.320-325, 1962.  
DOI: <https://doi.org/10.1037/h0045208>
- [27] N. G. G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itude and Work Values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vol.8, no.2, pp.119-141, 2019.
- [28] M. M. Marini, P. Fan, E. Finley, A. M. Beutel, "Gender and Job Values", *Sociology of Education*, vol.69, no.1, pp.49-65, 1996.  
DOI: <http://dx.doi.org/10.2307/2112723>
- [29] M. Gagné, J. Forest, M. H., Gilbert, C. Aubé, E. Morin, A. Malorni, "The motivation at work scale: Validation evidence in two languag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70, no.4, pp.628-646, 2010.  
DOI: <http://dx.doi.org/10.1177/0013164409355698>
- [30] E. Y. Kim, S. Y. Sung, M. G. Choi,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Parental Autonomy Support Environ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Engagement According to Type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5, pp.1-27, 2014.
- [31] E. Y. Kim, S. Y. Sung, M. G. Choi,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eter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Types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and Career Maturity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1, no.4, pp.21-41, 2018.  
DOI: <https://dx.doi.org/10.32341/JCER.2018.12.31.4.21>
- [32] D. Spurk, A. Hirschi, M. Wang, D. Valero, S. Kauffeld, "Latent profile analysis: A review and "how to" guide of its application within vocational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20, 103445, August 2020.  
DOI: <https://doi.org/10.1016/j.jvb.2020.103445>
- [33] E. K. Jung, D. H. Ahn, "Development and Validations of Career Motivation Scale (CM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for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35, no.2, pp.285-317, 2021.  
DOI: <http://dx.doi.org/10.17286/KJEP.2021.35.2.03>
- [34] M. J. Park,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competencies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in Ulsan", Ulsan Women &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20.
- [35] J. C. Nunnally, *Psychometric Theory*(2nd ed), NY: McGraw-Hill, pp.225-255, 1978.

- [36] J. F. Hair, W.C. Black, B. J. Babin, R. E. Anderson, R. L. Tatham, *Multivariate Data Analysis*(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2006.
- [37] C. Fornell,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18, no.1, pp.39-50, 1981.
- [38] E. Y. Kim, S. Y. Sung, M. G. Choi,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he Parental Autonomy Support Environment,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Engagement According to Types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5, pp.1-27, 2014.

---

박민정(Min-Jung Park)

[정회원]



- 200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문학석사)
- 2012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문학박사)
- 2018년 2월 ~ 2019년 6월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차장
- 2019년 10월 ~ 현재 :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정책연구팀 연구위원(팀장)

<관심분야>

가족, 가정관리, 여가, 일·생활 균형